



사진은 2002년 서울국제도서전

6월 4일부터 6일 간 2003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매년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이나 볼로냐 아동도서전 등 몇몇 국제도서전에 대한 출판계의 관심은 지대한 반면 서울국제도서전은 그야말로 조용히(?) 지나간다.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이 출판계의 요구를 충실히 담아내 '그들만의 잔치'로 치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 개최되는 도서전의 준비상황을 미리 살펴본다.

2003 서울국제도서전(코엑스 1층 태평양관)이 오는 6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개최된다. 부대행사로 일반인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책하고 놀자> 등의 생방송을 추진하고 전쟁 사료, 전쟁 사진, 전쟁 문학 등을 전시하여 평화의 세기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책에 담고자 하는 특별전을 비롯, 세계 우수 아동 도서전 코너를 마련하여 볼로냐 라가짜상 후보작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는 또한 특별기획전으로 "베스트셀러 1백년전"을 마련해 책으로 당시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도록 했고, 대교문화재단에서 협찬을 받아 국내 참가사에 한해 한 업체당 현장경비로 2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도서전 활성화를 위해 설문조사 실시

지난 2002 서울국제도서전(6.7-6.12)은 월드컵 약재에 물린 데다 예년과 별 차이가 없는 행사내용, 홍보 부진 등 여러 요인이 겹쳐 관람객 수가 저조했다. 더구나 일반 단행본 출판사의 참여율 저조, 특정 분야에 치우친 전시내용 등에 대한 지적도 여전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러한 지적들을 발전적으로 수용하고자 지난해 말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313개 출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도서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참여주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반성 때문이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도서전 불참여이유로 재정부담 36.4퍼센트,

전시 준비 인력 부족 33.3퍼센트, 출판도서 부족 30.3퍼센트 순으로 나타나 열악한 국내 출판계 환경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 최소 인원으로 움직이고 있는 데다 홍보부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출판사가 대부분인 환경을 감안하면, 일주일 가량의 행사 기간 동안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곧 실질 매출액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직원을 현장에 교대 근무시킬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출판사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참여가 어렵다는 결과가 나온다.

또 다른 설문결과를 보면 단행본 출판사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동·학습 분야와 일반 출판 분야 전시공간 분리'가 41.3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70퍼센트의 출판사가 도서전 참가비용(부스 한 개당 140만 원)이 비싸다는 응답을 보였다. 주최측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이다.

수익을 내기 위한 장에서 홍보의 장으로

무엇보다 서울국제도서전을 전 출판계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최측의 적극적인 마케팅은 물론 출판사나 다른 업체들이 도서전에 대한 접근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다. 적어도 참가비용만큼은 '건져야' 하고 수익을 내야만 하겠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자사를 일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장으로 도서전을 활용하겠다는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부스 한 개당 참가비용이 140만 원인데 이는 일반 신문광고의 5단 통 광고비보다도 작은 액수이다. 일주일 가량을 면대면으로 독자와 직접 만난다는 것은 출판사의 홍보수단으로 유용하다. 단순히 자사의 책을 팔고 구색 맞추기식으로 도서목록 등을 배치하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홍보와 마케팅 수단으로 접근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갖기 시작할 때, 국제적인 도서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구호는 더 이상 공허한 울림으로만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홍민**

취재 양선희 기자